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우상 숭배를 강요 받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에 던져진 세 사람과 함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은 25절에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네번째 사람에 대해 천사 혹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네번째 사람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풀무 밖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거하며, 함께 거닐고 계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풀무불이 일곱배가 강해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느부갓네살 왕과 17절의 다니엘의 세친구들의 고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건져냄이라고 번역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해답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23(월)	12/24(화)	12/25(수)	12/26(목)	12/27(금)	12/28(토)	12/29(주일)
약 4-5, 벤전 1-2	벤전 3-5, 벤후 1-2	벤후 3, 요일 1-3	요일 4-5, 요일,요삼,유	계 1-4	계 5-9	계 10-14

Q T

이번 주 QT 말씀

12/23(월)	12/24(화)	12/25(수)	12/26(목)	12/27(금)	12/28(토)	12/29(주일)
눅 1:26-38	눅 1:39-56	눅 2:1-14	계 17:1-6	계 17:1-6	계 17:1-6	계 17:1-6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
3. 오늘 나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